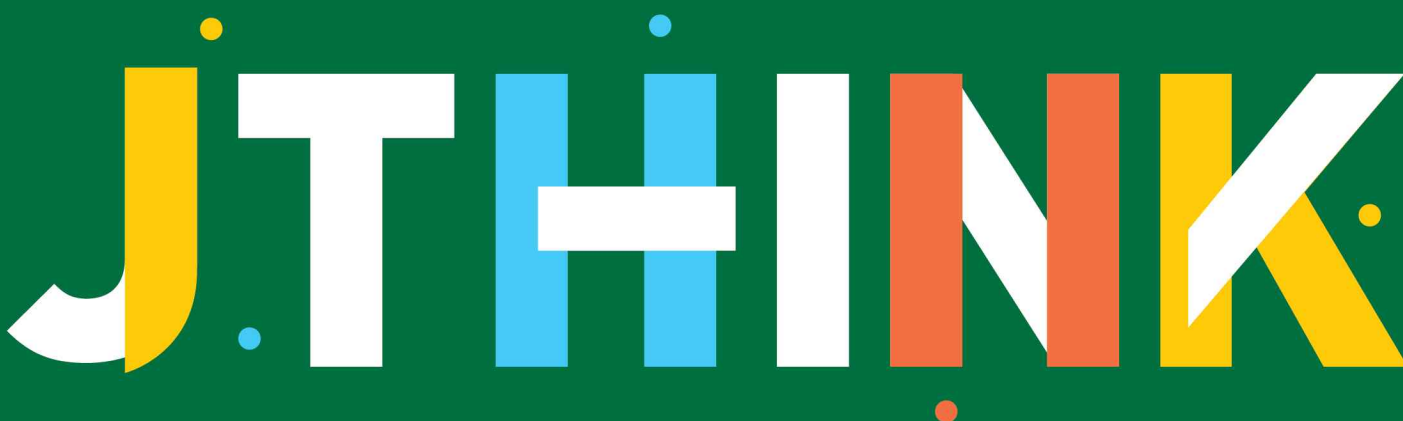


출생아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연구책임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이슈브리핑 요약

- 성인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교육·주거·창업 비용에 대해 부모의 자산 규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지역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첫걸음
- 인프라와 자산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전북 청년들이 겪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파격적인 자산 기반 복지가 필수적임
- 중앙정부 및 시군의 현 정책은 단발성 소모 지출(장려금·수당)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기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공백이 존재함
- 영국은 아동신탁기금을 운용하여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시 250파운드, 7세가 되는 해에 250파운드를 지급하고 부모가 연간 한도 약9,000파운드를 추가 저축하여 18세 성인되는 시점에 인출하는 제도를 통해 성년기 기초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내 출생아(2024년 기준 약6,4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1:1매칭으로 출생시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이를 도내 혁신기업에 60%이상 투자한 후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세에 투자성과로 1억원의 자본 형성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장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제안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부모 부담률을 대폭 완화(예: 부모 20% : 지자체 80%)하여 경제적 배경에 상관 없는 기회의 평등 보장
-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전북 벤처펀드 1조펀드와 연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상장기업, 벤처기업 및 비상장혁신기업 등에 투자하여 연 8.2%의 수익을 통해 20년간 1억원 달성
-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하고 부모 적립금과 그 수익금만 반환하여 전북 내 장기 거주 유도
- '전북아이희망펀드'를 통해 20세에 형성된 1억 원의 자산이 일시적인 소비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전북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며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 추가 운영
- 성인 이후 1억 원의 자산을 전북 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주거 지원금(예: 2,000만 원)을 매칭 지원하거나 '반할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
- 1억 원을 시드머니로 전북에서 창업할 경우, '전북 벤처투자 1조 펀드'와 연계하여 동일 금액의 추가 투자 또는 무이자 융자 패키지 지원
- 전북 내 혁신기업이나 향토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예: 3년, 5년) 근무 시, 1억 원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추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근로자 정착 장려금' 추가 지급
-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의 자산은 전북 내 주거 마련이나 사업 시작의 종잣돈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흐름을 막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동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전북 내 혁신 기업(피지컬AI, 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 견인 및 지역 기업이 성장하여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 형성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 '고향의 성장이 나의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체 의식 고양

I. 전북 출생아 자산형성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출발점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핵심
 - 성인이 되는 20세는 교육(대학 등록금), 주거(자취 및 독립), 창업 등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 현재 한국 사회는 부모의 자산 규모가 자녀의 학력과 직업으로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북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세에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청년이 스스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자산' 역할 가능

수도권 청년과 자산형성 격차해소 필요

- 자산의 유무는 도전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창업이나 과감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토대
-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인프라와 자산접근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전북 청년들의 자산형성 격차해소 필요

〈수도권 청년과 전북 출생청년의 사회출발선 비교〉

구분	수도권 청년	전북출생 청년	전북아이희망펀드 도입 후
주거비용	부모 지원 및 고가치 부동산 기반 대출 용이	전세/월세 자금 마련을 위한 초기 대출 의존도 높음	1억 원의 자산으로 안정적 주거 기반 확보
교육기회	고가의 사교육 및 글로벌 연수 기회 풍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기계발 기회 포기 발생	등록금 및 전문 교육비 걱정 없는 학습권 보장
창업환경	VC/AC 접근성 및 엔젤 투자 기회 집중	초기 자본 부족으로 혁신적 아이디어 사장	시드 머니(Seed Money) 확보로 지역 창업 활성화
사회출발선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축적 기회	자산 형성 기회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유출 가속	지역 내 정착 및 경제활동의 강력한 유인책

지역성장과 나의 자산형성 연계를 통한 지역정착 앵커 형성

- 아이들의 자산이 전북 내 혁신기업의 성장 자본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 기업이 만든 수익이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내 고향의 성장이 나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은 전북 내에서 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이 되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억제하는 강력한 '지역 정착 앵커(Anchor)'가 될 것으로 기대
-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국가와 지역이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

II. 출생아 생애주기별 정책분석

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반조성 역할

- 정부는 출생아에서 청년까지 보편적 복지와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지원
 - 임신·출산: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원
 - 아동·청소년: 아동수당(월 10만 원),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및 기초학력 보장
 - 청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각종 기술창업 패키지(예비·초기·창업도약),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생애주기별 정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며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 중심으로 생애주기 전 단계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
 - 주거: '반향주택'(반값할인주택) 300호 공급 추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 출산·육아: 3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500만 원),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 출산급여(최대 90만 원) 신설
 - 청년: '전북 청년 함성패키지'를 통한 지역 안착 지원 및 청년 직무인턴 확대
- 14개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과 더불어 시군마다 출산지원금, 육아, 청년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김제시는 첫째아에게 800만원 지원으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커져 고창군은 다섯째이상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있음
 - 육아를 위해 정읍시와 부안군 등은 출산 후 육아용품 구매비 지원이나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과 고창군 등은 분만 산부인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임신부 이송 지원비나 산전 검사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원시와 김제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거나 시 운영 시설 이용료 면제
 -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급여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기업 임대료 지원, 입직 초기청년 상담 지원 등을 추진 중

〈전북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현황〉

구분	도시형	농촌형
핵심전략	일자리 중심: 기업 연계 취업, 창업 교육, 주택 대량 공급	정착 기반 중심: 귀농귀촌 시설, 농업인 수당, 이동권 보장
특색정책	청년시청(익산), 청년이음(전주) 등 전용 공간 운영	수산 장비 임대(부안), 산악관광 연계 일자리(무주)
지향점	인구 유입 및 도시 활력 증진	인구 유출 방지 및 기초 생활권 보장

생애주기별 정책의 한계와 대안

-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맹점 때문
 - 출생 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청년기에 몇십만 원의 수당을 주는 식의 단발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영유아기 지원과 청년기 자립 사이의 '자산 형성 공백기'발생
 - 인접한 시군끼리 장려금 액수 경쟁은 도외 인구 유입보다는 도내 인구의 주거지 이동만을 유발하며,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킴
 - 대부분의 지원금이 생활비나 육아용품 구매로 즉시 소비되어,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종자돈(Seed Money)'으로 축적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청년과의 자산격차 심화
- 현재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생애주기별 정책은 '오늘의 생존'을 돕고 있지만 '내일의 도약'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출생아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는 전북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전북 어디서나 동일한 출발선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생애주기별 정책 한계와 대안〉



III. 영국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운용사례¹⁾

영국 아동신탁기금 개요

- 토니 블레어 정부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회의 대물림"을 기치로 내걸고 2005년에 도입한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이하 CTF)은 전 세계적으로 '기초자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영국 아동신탁기금은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시 250파운드, 7세가 되는 해에 250파운드를 지급하고 부모가 연간한도 약9,000파운드를 추가 저축하여 18세 성인되는 시점에 인출하는 제도
 - 대상: 2002년 9월 1일부터 2011년 1월 2일 사이에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약 630만 명)
 - 초기 지급: 아동 출생 시 정부가 250파운드(약 4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는 두 배인 500파운드(약 80만 원) 지급
 - 추가 지급: 아동이 7세가 되었을 때 동일한 금액(250/500파운드)을 추가로 적립
 - 부모, 조부모 등 누구나 연간 한도(현재 기준 약 9,000파운드) 내에서 추가 저축 가능
 - 비과세 혜택: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및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
 - 운용 주체: 은행, 빌딩 소사이어티(Building Societies), 주식 투자 기관 등 부모가 선택한 민간 운용사 또는 부모가 선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운용사를 지정하여 계좌 개설(전체 계좌의 약 28%)
 - 인출: 18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만 인출 가능하며, 16세부터는 본인이 계좌 관리는 할 수 있으나 인출은 불가

영국 아동신탁기금 운용현황

- 영국정부는 아동신탁기금을 위해 20억 파운드(약3조4천억원)를 초기시드머니로 투입하여 2025년 현재 75억파운드(약12조8천억원)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음
 - 총 투입 예산: 영국 정부는 630만 명의 아동을 위해 총 20억 파운드(약 3조 4천억 원)를 초기 시드머니로 투입
 - 민간 추가 납입액: 정부 지원금 외에 부모 및 친인척들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추가로 납입한 저축액은 약 30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
 - 현재 시장 가치: 2023년 영국 국가감사원(NAO) 보고서 당시 약 90억 파운드였던 자산 가치는 주식 시장의 회복과 장기 복리 효과에 힘입어 2025년 4월 기준 100억 파운드에 이름
 - 자산 증식 배수: 정부 투입 원금(20억 파운드) 대비 약 5.2배, 민간 포함 총 원금 대비 약 2.1배의 자산 팽창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평균 수령액: 만기 시 계좌당 평균 가치는 약 2,242파운드(약 380만 원)지만, 주식형 계좌 평균 잔액은 약 2,950파운드 ~ 3,200파운드 (약 500만 원 ~ 540만 원)
 - 부모가 연간 납입 한도(현재 약 9,000파운드, 약 1,500만 원)를 적극 활용하고, 공격적인 주식형 상품으로 운용했을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대학 등록금이나 창업 자금 수준의 목돈 수령

1) Child Trust Funds Research Briefing (2025.09.26.)참조

- 아동신탁기금의 운영방식은 주식투자형과 예금형으로 나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식투자형(Stocks & Shares CTF)은 대개 주식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장기성장형 펀드로 운영
 - 평균 연간 수익률: 약 5% ~ 11% (운용사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
 - 성공 사례 (Sheffield Mutual 등): 일부 운용사는 출시 이후 15년 동안 평균 연간 1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초기 250파운드 바우처만으로도 만기 시 원금의 약 3배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
- 예금형(Cash CTF)은 안정성을 중시하여 은행 예금 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평균 연간 수익률: 약 2% ~ 3%
 - 특이점: 주식형에 비해 변동성은 낮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산 형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

〈영국 아동신탁기금 운영현황〉



기회의 대물림을 현실로

- ✓ 20억 파운드 투입 → 105억 파운드 가치로 성장
- ✓ 18세 성인 시점에 인출 가능한 '기초자산' 제공
- ✓ 주식형 펀드 운용 시 연평균 수익률 최대 11.4% 기록

국가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자산을 책임지는 패러다임 전환

-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TF)은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통장'을 넘어, 국가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인 정책
 - 자산이 전혀 없는 빈곤층 아이들도 18세가 되면 본인 명의의 자금을 갖게 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에 의한 계급 고착화 완화
 - 16세부터 본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18세에 인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투자, 이자, 리스크 관리를 자연스럽게 학습
 -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는 청년들은 대학 진학, 기술 교육 이수, 창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

IV.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영방안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영개요

- 전북아이희망펀드는 전북내 출생아(2024년 기준 약6,4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1:1매칭으로 출생 시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이를 도내 혁신기업에 60%이상 투자한 후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세에 투자성과로 1억원의 자본 형성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장하는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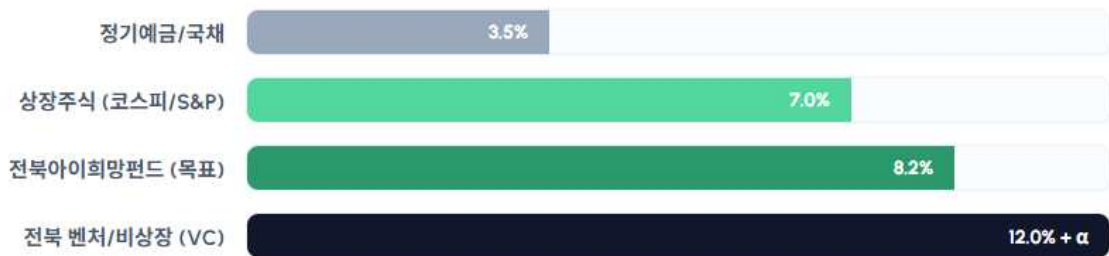
- 펀드 조성 및 자원분담체계: 부모와 지방정부가 1:1로 매칭하여 초기 시드머니 확보
 - 대상: 2027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2024년 기준 약 6,400명 추산)
 - 초기 적립금: 가구당 2,000만원(일반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부모 분담률 차등)
 - 일반가구: 부모 1,000만 원 + 전북특별자치도 700만원 + 14개 시군 300만 원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부모 분담률을 대폭 완화(예: 부모 20% : 지자체 80%)하여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는 기회의 평등 보장
 - 납입 방식: 일시납형과 분할납형 선택
 - 일시납형: 출생 직후 2,000만 원 즉시 적립 (복리 효과 극대화)
 - 분할납형: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5~10년간 분할 납입하는 옵션 제공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전략

- 기금운용 및 투자전략: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
 - 투자 대상 (Target):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전북 내 혁신기업에 투자
 - 핵심 분야: 피지컬AI(전주, 완주), 이차전지(새만금), 모빌리티(군산·익산), 농생명바이오(정읍, 순창), 스마트팜(김제·남원) 등
 - 투자 방식: 지역 벤처펀드(VC) 출자, 지역상장 및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안전자산(채권 등) 투자 등
 - 나머지 40%: 국공채, 우량주 등 안정성 중심의 자산 배분으로 리스크 분산
 - 전담 운용사 선정: 전문 자산운용사를 공모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감독

-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한 복지 기금을 넘어, 전북의 강력한 벤처투자 생태계인 '1조 펀드'와 결합하여 '자산 형성-기업 성장-지역 안착'의 선순환 구조 완성
 - 전북아이희망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전북 벤처투자 1조 펀드'의 하위 섹터 펀드(피지컬AI, 이차전지, 레드바이오, 스케일업 등)에 LP(출자자)로 참여시켜 운용 효율성 극대화
 - 벤처펀드의 핵심인 '인내하는 자본'으로서, 20년이라는 초장기 투자 기간을 가진 희망펀드가 1조 펀드의 장기적 수익 기반을 지탱하는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
 -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하는 지역 유망 기업의 지분 확보

〈투자 자산별 기대수익률〉



전북 벤처투자 1조 펀드 연계 피지컬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집중 투자

1억원 수익보장 및 20세이후 인출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 및 비상장혁신기업 등에 투자하여 연 8.2%의 수익을 통해 20년간 1억원 달성

〈투자 자산별 특성〉

자산군	연평균 수익률(추정)	20년후 자산가치(2,000만원기준)	특성
정기예금/국채	2.5~3.5%	약3,277만원 ~ 3,989만원	원금 안정성 높으나 목표 달성 불가
상장주식	6.0~8.0%	약6,414만원 ~ 9,321만원	시장 변동성에 노출, 목표치 근접
전북아이희망펀드	8.2%	1억 20만원	안정 자산 + 혁신 투자 혼합
벤처/비상장	12.0~20.0%	1억 9,292만원 ~ 7억 6,675만원	고위험·고수익, 장기 폐쇄형 적합

- 1억 원 수익보장: 20년 후 목표 자산인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원금 및 수익 보장: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20세 시점의 자산이 1억 원에 미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
 - 재정 보전 재원: 펀드 운용 수익 중 목표치를 초과한 '초과 수익분'을 별도의 '수익보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손실 발생 시 교차 보전
 - 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하고 부모 적립금과 그 수익금만 반환하여 전북 내 장기 거주 유도

포스트1억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속정착 유도

- '전북아이희망펀드'를 통해 20세에 형성된 1억 원의 자산이 일시적인 소비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전북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며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 운영
 - 1억 원의 자산을 전북 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주거 지원금(예: 2,000만 원)을 매칭 지원하거나 '반할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
 - 1억 원을 시드머니로 전북에서 창업할 경우, '전북 벤처투자 1조 펀드'와 연계하여 동일 금액의 추가 투자 또는 무이자 융자 패키지 지원
 - 전북 내 혁신기업이나 향토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예: 3년, 5년) 근무 시, 1억 원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추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근로자 정착 장려금' 추가 지급
 - 1억 원 중 일부를 지역 내 후배 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투자 손실 보전 보험 가입 지원이나 소득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 완성
 - 1억 원을 기반으로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산 관리 교육과 창업 경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의 역량을 지역 자산화

〈포스트1억원 인센티브를 통한 지속정착 유도〉



V. 기대효과

○ '청년 자립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 제공

- (기초 자산 형성)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세에 약 1억 원의 자산 형성
- (심리적 안정감과 도전 정신)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혁신적인 창업이나 과감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심리적 토대 마련

○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억제

- (지역 정착 앵커(Anchor) 역할)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의 자산은 전북 내 주거 마련이나 사업 시작의 종잣돈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흐름을 막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동
- (장기 거주 유도) 펀드 운영 방식상 타 시도 진출 시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북 내에서의 장기 거주를 자연스럽게 유도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혁신 기업 성장 자본)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전북 내 혁신 기업(피지컬시, 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
-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기업이 성장하여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 형성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 '고향의 성장이 나의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체 의식 고양

○ 기존 정책적 한계 극복 및 사회적 정의 실현

- (자산 형성 공백기 해소) 영유아기 단발성 지원과 청년기 자립 사이의 공백을 메워, 지속 가능한 자산 축적 시스템 구축
- (기회의 평등 보장) 취약계층 가구의 부모 부담률을 낮춰(예: 부모 20% : 지자체 80%) 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출발선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회의 대물림' 실현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2025) 2024~2025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2025) 2024 전북형 저출생 대책 -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 실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2025) 2024년 벤처펀드 수익률 분석 보고서

통계청. (2025) 2024년 8월 및 연간 출생·사망통계(잠정)

Abbas Panjwani. (2025.09.26.) Child Trust Funds Research Briefing

Vol.347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